



##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_ 사도행전 2:17

##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
|-----|---------------|---|-------------|----|---------------|
| 2-3 | 하나님의 선교와 가정   | 6 | 중보기도부       | 9  | 사랑을 나누는 집     |
| 4   | 총회 규칙 및 규정 개정 | 7 | 여전도회 / 선교편지 | 10 | 십자말씀이 / 기독교부모 |
| 5   | 장애인사역부 / 사랑나무 | 8 | 교사일기 / 간증수기 | 11 | 교회사용설명서-치리회   |



## 하나님의 선교와 가정 연계사역방안



하나님의 선교

일상 속에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 이것이 교회의 선교입니다.

신학자인 김세운 교수는 그의 책 ‘복음이란 무엇인가’에서 교회의 선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들에서 예수의 주권에 의지하고 순종하도록 촉구할 뿐 아니라,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제도들과 과정들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도 ‘일상 속에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선교요, 교회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선교입니다. 이제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세워갑시다.

함글함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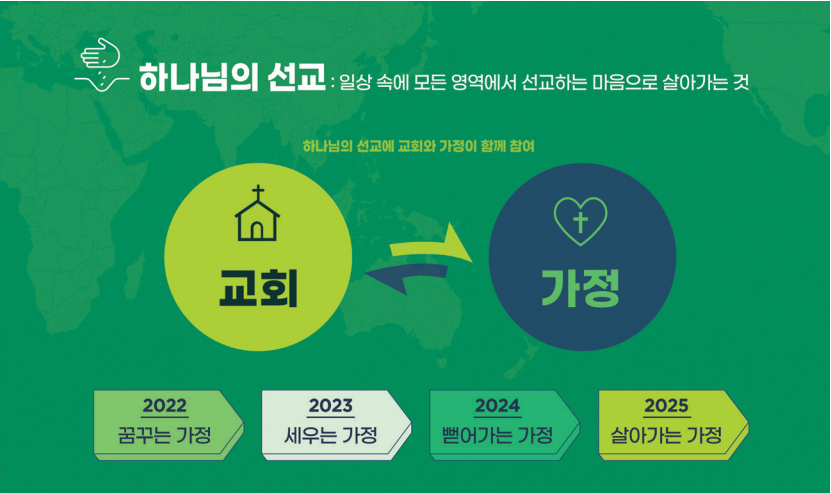
## 하나님의 선교, 이제 가정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교육과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교육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우리 앞선 시대와 우리 시대가 다른 것이 있다면 가정이 중심이 되어 교육하고 선교해야만 교육과 선교가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4년간 가정 중심의 다음세대 교육 및 교회 교육을 위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가족이 신앙교사입니다.’ 등의 표어를 정하고 삶을 나누어 왔습니다. 올해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란 표어를 정하고 가정이 중심이 된 선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올해 1월 첫째 주에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 교회의 기도와 말씀 속에 있었는데, 이제 구체화된 내용들을 눈에 보이는 사역으로 정리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① 하나님의 선교 : 일상 속에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선교란 ‘일상 속에 모든 영역에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은 ‘가정이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창립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서 교회가 그 중심이 되어 사명을 감당해왔는데, 앞으로는 교회가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가정이 중심이 되어 선교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 ② '하나님의 선교'의 이해 : 하나님의 선교를 가정이 배우고 꿈꾸며 성장하는 단계



우리는 2022년 동안 설교, 함글함글 기사, 하나님의 선교 TFT, 교구와 유유청청의 실제적 실천 준비 등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접하고 또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소개될 내용들은 낯설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 ③ '하나님의 선교'의 실천 : 하나님의 선교를 가정이 참여하고, 세우며 실천하는 단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하나님의 선교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국내선교지 결연부터 현지인 선교사 양성을 거쳐 국내선교 실천에 이르기까지, 통일선교지 결연부터 탈북자 선교사 양성을 거쳐 통일선교 실천에 이르기까지, 해외선교지 결연부터 해외 선교사 양성을 거쳐 해외선교 실천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려 합니다.

### ④ '하나님의 선교'의 실천(가정) : 가정이 중심되어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단계



다음으로 가정은 교육 과정과 선교 컨퍼런스, 선교 중심 가정예배 등 ‘교육 훈련’을 통해, 선교 현장 참여와 국내외 비전트립, 선교지 가정 결연 등 ‘선교 참여’를 통해, 이달의 캠페인과 가정 선교 실천, 복음적 선교 활동 등 ‘일상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니다.

교육훈련 : 교육과정(양육클래스, BPC), 선교 컨퍼런스(선교전문가, 선교사)  
선교참여 : 선교현장 참여(가정별), 국내/해외/접경 비전트립 선교지-가정결연(국내, 통일, 해외)  
일상실천 : 이달의 캠페인, 가정 선교 실천(선교 트리), 복음적 선교 활동(전도, 간증, 나눔)

⑤ 선교약정(선교사와 가정 연결)

### 선교약정 (선교사와 가정 연결)

▶ 11.6(주일)

|                                                                    |                                                         |
|--------------------------------------------------------------------|---------------------------------------------------------|
| <b>A</b><br>최화영(베트남)<br>김대환(베트남)<br>이원국(베트남)<br>아람(베트남)<br>국내선교사 1 | <b>B</b><br>금상호(코스타리카)<br>이원재(케냐)<br>김윤희(영국)<br>통일선교사 1 |
| <b>C</b><br>윤바나바(키르기스스탄)<br>한나라(키르기스스탄)<br>국내선교사 2                 | <b>D</b><br>유성훈(필리핀)<br>이인호(필리핀)<br>정수아(중국)<br>국내선교사 3  |

• 선교사  
 폴타임 파송(5명) : 베트남(최화영), 코스타리카(금상호), 키르기스스탄(윤바나바), 필리핀(유성훈), 키르기스스탄(한나라)  
 파타임 파송(2명) : 베트남(김대환), 영국(김윤희)  
 협력 선교사(4명) : 베트남(이원국), 중국(정수아), 케냐(이원재), 필리핀(이인호)  
 현지 선교사(1명) : 베트남(아람)  
 국내 선교사(3명) : 미정  
 통일 선교사(1명) : 미정

이렇게 성도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모은 가운데 11월 6일 주일에 선교사님들과 각 가정을 연결하는 귀한 결연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 B, C, D 4개 군을 마음에 품고 정해진 기간 동안 기도 혹은 물질로 후원하며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⑥ 비전선포(재정 및 기도 선교약정)

### 비전선포 (재정 및 기도 선교약정)

▶ 11.6(주일)

STEP 1

STEP 2

STEP 3

STEP 4

| 말씀을 통한 비전선포 | 선교지 영상 공유 | 선교 기도회 | 재정 및 기도 선교약정서 |  
 10/23 주일예배 | 축도 전 특별순서 1 | 축도 전 특별순서 2 | 예배 후 작성하여 신청함 제출 상시 신청함 설치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2022)부터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2023), ‘하나님의 선교로 뻗어가는 가정’(2024), ‘하나님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2025)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제 가정이 중심입니다.



책 속의 명문장

## 교회의 소명

• 기독교 세계의 해체는, 교회가 자신의 새로운 선교적 상황을 받아들이고 “선교적 주도권과 특정한 선교적 책임”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교회의 정체성은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와 목적에서 자신의 자리를 이해함으로써 형성되어야 한다.

• 제도와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선교에 기여한다.

• 우리의 선교적 정체성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 교회가 복음과 성경 이야기를 공적 진리 -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문화의 삶을 위한 진리 - 로 이해할 때만, 선교적 만남을 위해 준비될 것이다.

• 교회가 예수를 중심으로 한 이 이야기를 성육신하고 알릴 때, 교회는 모든 사람을 초청해 언젠가 땅을 가득 채울 새로운 인류에 참여함으로써 인간 존재의 참된 의미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교회의 선교는 모든 사람을 향한 소환장으로서, “믿고 행함으로써, 구체적으로는 건축자이신 분을 섬기는 일에 이미 헌신한 공동체의 일부가 됨으로써, 부르심의 말씀에 응답하라는 것”이다.

• 교회가 정의·자비·연민·살롬의 행위를 할 때, 그런 행위로 성령은 예수 안에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언하신다. 교회가 세상의 슬픔과 비참에 깊이 사랑으로 관여하게 될 때, 성령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를 가리키신다.

• 교회는 자신의 선교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그들의 답은 예수의 방식에 있었다.

•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하는 선교는 첫째, 성육신하신 예수의 사역을 계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교회의 선교는 부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하나님의 다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교회에서 작동해서 새 창조를 역사의 한 가운데로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살아 계시며 높여지신 주님과 관계 안에 그리고 그분에 대한 순종 안에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하는 선교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다.

• 성령의 새로운 실재의 임재는 공동체의 삶 전체에 현존하며 능한 행위들에 의해 입증되는데, 이는 결국 설명을,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선포를 요청한다.

• 교회는 대야에 물을 떠서 무릎을 꿇는 주님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 도구로서, 교회는 자신의 이웃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돕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 하나님 나라 없이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나 예수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구원을 왜곡한다.



교회의 소명, 마이클 고한, IVP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규칙 규정 공포 및 시행

## 교단의 책임성·공정 효율에 맞춰 규칙 및 규정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에선 총회 규칙부가 한 회기 연구해 본회의에 상정한 여러 규칙·규정 개정 및 제정 청원안을 표결로 처리하고 총회 폐회시 총회장이 이를 공포함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함줄함울은 교단 기관지인 <기독공보>에 소개된 107회 총회에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및 제정된 총회 규칙·규정에 관한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하여 소개한다.

함줄함울

### 총회 규칙(개정)

우선, 총회 규칙 중에 별정직 인사를 구분해 명시했다. 별정직 인사는 제1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별정직 인사에서 사무총장 인사를 구분하기 위해 사무총장 선임은 제29조(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장이 총회의 인준을 얻어서 임명한다)에 따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히 총회 규칙 개정 중에 관심을 끄는 부분은 총회 각 부·위원회 임원 선출을 각 부·위원회 회의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부·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할 것인지에 맞춰졌다. 현 규칙에는 각 부·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선 총회 규칙 중에 각 부·위원회 임원과 실행위원 선출 방식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례를 존중해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총회 각 부·위원회 임원(부·위원장, 서기, 회계)은 각 부·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조항을 '각 부·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한다'로 자구를 개정했다. 단서 조항으로 한 권역(지역)에 1인 이내로 1회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개정)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했던 상황을 고려해 국가 재난의 특별한 상황에선 총회와 노회가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국가재난의 특별한 상황에선 헌법시행규정(전쟁 및 소요,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개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엔 온라인을 통해 개최할 수 있다)을 준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개정)

총회 정책상, 총회장을 총회유지재단 당연직 이사로 파송하는 조례도 개정됐다. 현 총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파송됨에 따라 그동안 증경총회장이 맡았던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은 현 총회장이 맡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총회연금재단에 대한 교단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당연직 이사로 사무총장 대신에 목사부총회장을 파송하게 됐다. 연금재단 공천 조건도 개정됐다. 현재 공천 조건인 '1년 이내에 500만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자'를 '임기개시(12월 13일) 전에 500만원 이상 재정적 기여자'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총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연합기관 중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삭제했다.

### 세계선교 운영규정(개정)

총회 기구개혁에 따른 기구 통폐합으로 국내다문화선교 업무가 세계선교부로 이관돼 세계선교 운영규정이 개정됐다. 세계선교부의 업무에 국내다문화선교가 포함됨에 따라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의 목적에도 이를 포함시켰다. 세계선교 운영규정 개정 중에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선교지 재산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선교지 재산관리에 대해선 기존에 "'1국가 1현지선교회 법인체' 혹은 '1현지선교회 1현지선교회 법인체'를 만들도록 규정"돼 있는 조항을 개정해 "에큐메니칼 선교정책에 따라 선교재산은 총회와 동역관계에 있는 현지교단에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수정했다. 에큐메니칼 선교정책에 입각해 선교지 재산을 현지교단에 등기하도록 반영한 결과다. 또한 선교지 재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총회라는 점을 명시했다. 현지선교회가 법인체를 등록할 때 "법인체 정관에 재산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있음"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선교지에 동역교단 및 교회가 없어 개별(개인)법인체로 등록하게 될 경우엔 개별(개인)법인체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이사장 선임, 이사 선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했다. 개별(개인) 법인에 관해선 반드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허락 하에 정관의 제정, 개정, 이사장 선임, 이사 선임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세칙(개정),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개정), 총회 장학재단 시행세칙(개정)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내규를 보완하기 위해 이단·사이비 관련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기본원칙,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및 연구방법을 정하는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세칙을 개정했다. 운영세칙엔 목적과 처벌규정지침을 신설하고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과 재심 지침, 보고서 작성 지침 등을 수정했다. 한국장로교출판사가 법인에서 단체로 정관을 변경함에 따라 명칭도 '재단법인 한국장로교출판문화원'에서 '한국장로교출판사'로 변경했다. 총회 장학재단이 장학금 수여 범위를 확대했다. 장학금 종류에서 '농어촌자립대상교회 목회자자녀장학금'은 총회 산하 자립대상교회 목회자자녀 장학금으로 개정했다. 또한 특별장학금 중에서 부서 장학금(농어촌거제 장학금, 에큐메니칼 장학금, 기독교 교육 장학금)을 삽입했다.

### 총회연금재단 정관(개정)

제107회 총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총회연금재단 정관도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연금재단 정관 목적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기관'임을 명시하는 한편 기부받을 요건 충족을 위한 목적도 추가했다. 또한 임원의 자격 중에서 '노회 소속 목사 장로'를 '총회 총대인 목사와 장로'로 자구를 수정했으며 이사는 등재 이전에 5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재단에 기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회 파송 당연직 이사로 '사무총장'을 총회 당회기 '목사부총회장'으로 변경해 총회의 책임감을 강화했다. 또한 임원의 임기는 연임과 중임이 불가하며 그동안 연임이 가능했던 이사장의 임기도 연임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임원 또는 임원을 역임한 자가 임기 중에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 이익을 얻게 하거나 재단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연금재단의 해산 요건도 강화됐다.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 결의로 해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 재적이사 3분의 2이상과 총회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게 됐다.

김성진 기자 / 기독공보

장애인사역부  
가을맞이 연합예배

## 가을의 끝자락, 아름다운 시월

주님의교회 장애인사역부는 축축한 가을비 내리던 지난 10월 9일 주일에 가을맞이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사람 낚는 어부”를 주제로 삼고, 연합예배와 식사 및 교제의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깊은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일상을 기적으로 채우셨음에 감사하며 나를 따라 부르신 주님 음성에 순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사역부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가을의 끝자락 아름다운 시월을 지내며 주께서 손수 물들여 놓으신 이 세상에서 주의 은총을 느끼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인사역부의 모든 예배와 사역과 여러 행사들을 위해 기도와 배려와 사랑으로 늘 지지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김은선 목사 / 장애인사역부



사랑나무  
가을수련회

## 3년의 공백을 지나

매년 함께 했던 너무나 당연한 시간이 올해는 너무나 소중한 새로운 느낌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나무 공동체가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 너무나 오랜만에 함께 야외에서 가을 수련회로 모였습니다. 하늘도 바람도 구름도 너무나 좋은 날, 아시아공원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가 추울까, 비가 내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따사로운 햇살 아래 시원한 바람과 함께 너무나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열 다섯 가정 중 열 두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하고 준비된 맛있는 식사와 즐거운 공동체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_ 로마서 12:4-5**

우리는 모두 다 다른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손뼉을 치기 위해서는 양 손바닥이 마주 보아야 하고 또 가까워져야 합니다. 머리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양손이 서로 말을 듣지 않으면 머리가 의도하는 대로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앞으로 다름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랑나무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몸이 되어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노홍주 전도사 / 사랑나무부



중보기도부  
기도세미나

##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주님의교회 중보기도부는 2022년 10월 6일에 기도세미나를 하였습니다. 143명의 중보기도자들이 참석하여 이인호 목사님(더사랑 교회 담임)의 “중단없는 기도사역”이란 강의를 듣고 예배 후에는 전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한분 한분이 귀한 중보기도자의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고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는 중보기도자들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느껴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저희들을 깨우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우시리로다”라고 하신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중보기도부는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시대의 기도요청들을 기억하고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이 요청하는 기도제목을 위해 거룩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교회에서, 가정에서,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05년 3월에 발대식을 가져 2022년 현재 21개팀 200여명 사역자들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성도들이 요청한 기도카드 및 나라와 교회를 위해 매주 정해진 1시간 동안 6층 중보기도실에서 개인 릴레이기도를 합니다. 전체 모임인 월례회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오전 10:30-오후 2:30)에 말씀 선포와 기도회 후 팀별 기도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목요일에는 팀장 기도회로 모이며 중보기도부 담당 이종성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회를 가집니다.

팀별 사역은 소그룹 형태로 운영이 되며 팀의 특별한 주제를 위해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임마누엘팀은 직장인들로 구성된 기도팀입니다. 주중에는 릴레이 기도팀 사역과 카톡으로 전달되는 긴급기도 중보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레위 중보기도팀은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를 담당하는 예배의 자리와 시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팀입니다. 목회자나 예배 순서 담당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력과 건강을 위해 레위기도실에서 주일 1부에서 4부까지 예배시간에 함께 모여 실시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파 중보기도팀은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입니다. 여러 긴급한 환자나 지병으로 인하여 치료하는 환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또한 임종이 가까운 환자들의 구원과 천국의 소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엘리야 중보기도팀은 갈멜산에서 긴급하게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성도들의 삶 속에서 긴급하게 요청되는 기도제목(영적 상황, 건강과 사업과 자녀 등등)에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기도하는 팀입니다. 긴급카드를 올리기에겐 시간이 촉박한 긴급한 기도 제목을 즉시 받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션 중보기도팀은 가정과 교회의 사명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팀입니다. 교회의 선교사역(국내, 해외, 북한, 군 선교)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현재 해외 선교위원회와 기도 제목을 공유하며 선교지와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비전 중보기도팀은 가정과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를 하는 팀입니다. 특별히 유유청청의 사역과 교역자들, 그리고 모든 다음 세대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기부(하임)부터 고등부, 청년부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유유청청과 사랑나무, 장애인사역부 등 16분의 교역자께서 이끌고 있습니다. 모세 중보기도팀은 남성들로 구성된 기도팀입니다.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로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방법은 교회 1층 로비 및 공원과 운동장 쪽 출입구 모두 3곳에 비치된 기도카드에 기도 제목과 내용을 작성하여 기도함에 넣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카드는 일주일에 한 번(주일 오후) 긴급, 일반, 자녀, 영혼 구원 나라와 교회, 하나원, 선교로 정리하여 중보기도실로 보내집니다. 교회 홈페이지로 신청을 하실 때에는 로그인을 하신 후에 이용해야 본인과 담당자만 볼 수 있어 비밀 유지가 가능합니다. 응급환자와 같이 기도카드를 작성하기에 촉박한 경우에는 각 팀장을 통하거나 라파팀에 연락을 주시면 즉시 중보기도를 합니다. 긴급기도의 경우에는 1개월, 일반기도는 2개월, 자녀기도는 3개월, 영혼기도는 6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계속 중보기도를 원하시면 카드를 다시 올려주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셨을 때 응답 카드를 제출해주시면 사역자들이 큰 힘을 얻고 격려가 됩니다.

담임목사님은 중보기도를 같이 해주시므로 카톡으로 올라오는 긴급기도는 이종성 목사님께서 즉시 전달해서 기도해주십니다. 기도카드로 중보기도함에 신청하신 것은 매주마다 모아서 두 분 목사님께 복사해서 드려서 중보기도를 같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요청으로 기도를 가급적 빨리 목사님께 전달해드리게 되었고 거의 실시간으로 중보기도를 함께해주시니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중보기도자 사역은 중보기도 양육과정을 수료하셔야 중보기도팀에서 같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양육과정은 11월에 시작될 예정이오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같이 중보기도사역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이종성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살리며 지키는 중보기도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설정희 권사 / 중보기도부

여전도회  
형제교회 방문

## 3여전도회원들이 포천 송우제일교회에 다녀왔습니다

9월 21일에는 3여전도회 회원들이 이창현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포천 송우제일교회에 다녀왔습니다. 포천 송우제일교회는 1995년에 철도 침묵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창현 목사님께서서는 30여 명의 성도들과 교회 주위에 있는 공단 외국인들과 함께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6년 만에 뵈는 이창현 목사님과 사모님은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밝고 온화한 모습이셨습니다. 주님의교회 계실 때 교구담당이셨거나, 양육클래스, 성지순례를 함께했던 기억들을 되살리며 재회의 기쁨과 반가움을 나누고 교회 이모저모를 보며 아늑하고 예쁜 교회 안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마음을 모은 후에 3여전도회 담당이신 윤경수 목사님의 인도와 이창현 목사님의 설교로 참으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요일 오전이라 우리 3여전도회회원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찬양 소리와 아멘 소리는 힘 있고 간절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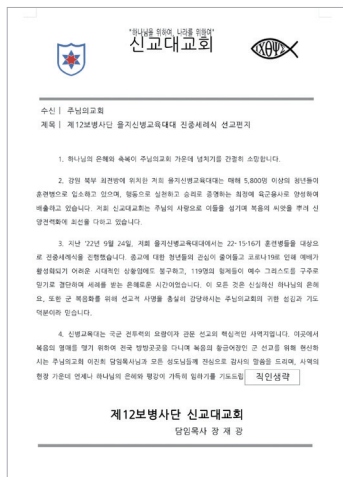
코로나로 인한 사역 환경의 위기 속에서도 복음에 대한 총명한 열정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창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풍성한 결실 맺기를 위하여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목사님 내외분과 함께 광릉수목원에 들어가 울창한 숲에서 삼림욕을 하여 건강한 공기도 마시고 담소 나누며 걸으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송우제일교회 뿐만 아니라 5개의 형제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 소리가 모든 교회에 전하여져서 큰 힘을 받게 하시며 승리하는 사역이 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박수희 집사 / 3여전도회



신교대교회  
진중세례식 선교편지

## 군 선교의 핵심 사역지, 신병교육대

1.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님의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강원 북부 최전방에 위치한 저희 을지신병교육대대는 매해 5,800명 이상의 청년들이 훈련병으로 입소하고 있으며, 행동으로 실천하고 승리로 증명하는 최정에 육군용사로 양성하여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교대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섬기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 신앙전력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2년 9월 24일, 저희 을지신병교육대대에서는 22-15·16기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진중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시대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19명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며 세례를 받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군 복음화를 위해 선교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주님의교회의 귀한 섬김과 기도 덕분이라 믿습니다.
4. 신병교육대는 국군 전투력의 요람이자 관문 선교의 핵심적인 사역지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복음의 황금어장인 군 선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주님의교회 이진희 담당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장재광 목사 / 신교대교회



교사일기  
유소년부 초등1부

## 소중한 아이들 마음에 말씀의 씨앗 뿌리기

“... 나의 부족한 믿음과 지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시작한 주일학교 교사. 한주일 한주일 지나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 <2012.02.03. 일기 중에서>

샬롬~~ 저는 유소년부 ‘초등1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경아 집사입니다. 10년 전 초등부를 먼저 섬기던 아들이 군대 입대하면서 그 자리를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교사 경험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좋아했기에 그러겠노라 승낙은 했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과 매 주일을 빠짐없이 출석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알팍한 저의 성경 지식이 부끄러워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사명감보다는 ‘이왕 시작했으니 1년만 섬기고 살면서 그만두어야지’라는 가벼운 경험 정도로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초등부에서의 예배와 활동들이 저를 얼마나 감동시키고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아이들을 만나 드리는 예배가 점점 기다려지고 준비하는 모든 상황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우리 반 친구 한 명이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 아닌가요?”라고. 그 짧은 한마디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장난도 치고 집중하지 못하는 듯도 보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였기에 사용하오니, 겸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모든 일들을 의뢰하게 하소서.’

저의 능력이 부족함을 알기에 이 기도를 붙잡고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받는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칩니다. 여름 수련회 때 아이들이 부르던 찬양은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 보지 못한 천상의 소리였고, 신나고 재미있게 게임을 하던 장난꾸러기들이 집중해 말씀을 듣고 뜨겁게 기도하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귀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저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까마득한 어린 시절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과 얼굴은 잊어버렸지만, 성경학교 때 한글로 가르쳐 주신 ‘갓 히 쏘 굳’이라는 찬양은 평생 저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에 귀한 찬양을 심어 주시고 평생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신 선생님이 계셔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분께 받은 것을 이제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초등부에는 오랫동안 교사로 섬기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한분 한분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넘치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감내하며 기쁨으로 섬기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그 모습들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어쩌면 이곳이 모양은 작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저에게 초등부 교사로 섬겨온 지난 10년의 세월은 순간순간이 은혜였고 감사였고 기쁨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 학교 교사의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섬겨 주실 선생님들이 결단하시고 참여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경아 집사 / 초등1부

주님과함께 큐티 간증수기  
1등

## 체면의 껍질을 벗기고

수 십년째, 저는 매주 1회 의무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갈 때면 세상적인 모습은 가능한 최대한 지우고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나를 꾸미고 약속 장소에 가서는 그곳에 조금이라도 개입될까 늘 조심하였습니다. 특히 옆 사람들과의 관계는 누가 아는데라도 할까 경계심에 저만치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제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른 채 정신없이 달려온 인생길을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함께’와의 만남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어리석은 모습으로 여러 겹 가려놓았던 체면의 껍질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무감으로 찾았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이미 익숙해져 버린 나의 신앙적 관행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인 성경적 가치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함께’는 저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주님과함께’의 시간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4:31)라며 매일 죽어야 할 ‘자기’가 있었다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어야 함을 알기에 어제의 일을 되돌아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에 감사하고 보다 나은 오늘을 준비하게 되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매일 말씀을 보며 다짐하고 다짐하건만, 깨진 것 같지만 아직도 가시처럼 남아 있는 보잘 것 없는 내 자존심과 지금도 두 손 가득 쥐고 있으면서도 감사하기보다 더더욱 갖고 싶고 필요한 것에 불평하는 저의 세상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고 결단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도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선물로 받은 귀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저는 어김없이 ‘주님과함께’로 새벽을 깨웁니다.

최민기 집사 / 2교구

사랑을 나누는 집  
소개

## ‘사랑을 나누는 집’을 소개합니다.

저희 “사랑을 나누는 집”은 2007년 4월 19일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현재 12명의 생활자들과 5명의 종사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 소 :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04번길 35-23

전 화 : 031-242-9811

시설장 : 최안숙 원장(010-3301-9811)



### 기도 제목

1. 항상 장애우를 비롯하여 직원들이 건강하기를 바라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바깥출입도 자유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의료서비스나 재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국가의 지원금이 장애인 생활하는데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동역하는 관심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 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집  
간증

## 내 일을 해주니 고맙다

1997년 2월의 어느 수요일, 주택 지하에 교회를 개척하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노숙자 한 분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밥을 먹을 수 있느냐”고 하기에 밥을 차려주었고, “하룻밤만 자고 싶다”고 해서 이틀 밤을 지내게 해주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틀 밤을 함께 지낸 후, 취직하겠다고 떠났습니다. 그 후 일주일만 지나서 그는 또 한 명의 노숙자를 데리고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이 일이 계기로 “동산교회에 가면 따뜻하게 먹여주고 잠도 재워 준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고, 그걸 듣고 15명 정도의 노숙인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교회 친교실에서 그들은 함께 먹고 자면서 성경 공부, 집회 참석, 전도를 하며 신앙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소문이 수원의료원(도립병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노숙인들을 치료한 후 보낼 곳이 없다면 저희 교회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든 노숙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2층 사택에서 식사 준비를 해서 지하교회로 가지고 내려가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식을 준비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주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내 일을 이렇게 해주니 참으로 고맙구나”

“주님 무슨 말씀 그리하십니까? 제가 주님께 고맙다고 해야지 주님께서 저에게 고맙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다 네가 내 일을 해주니 너무 고맙구나” “주님 그런 말씀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주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면서 서로에게 “고맙다” “아닙니다”하면서 음식을 들고 계단에 서서 펄펄 울기도 하였습니다.

노숙인들이 점점 많아지자 시청에서는 인가를 내고 돌보아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과 60세 이하로 선별하여 장애인 시설과 요양원으로 인가를 내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특수목회로 장애우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인요양병원은 8년간 운영하다가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어, 현재는 장애우들만 돌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다만 거기에 순종하며 섬겨왔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최안숙 원장 / 사랑을 나누는 집

###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민수기편

이번 호에는 민수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조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57호 레위기편 정답



#### 가로 힌트

3. 특별한 봉사를 목적으로 구별되고 스스로 금욕을 서원하여 자신을 봉헌하는 헌신자. '헌신한, 봉헌한'의 뜻을 가진 '나자르' (nazar)에서 파생된 말이다. (민 6:1-21)
5. 요셉의 아들. 자손이 길르앗을 쳐서 빼앗아 차지했다.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이다. (민 34:13~55)
7. 야곱의 아들 유다의 5대 손이며 나손의 아버지이다. 다윗의 7대 조부이다. '고귀한 친척'이라는 뜻이다. (민 1:7)
10. 집단을 이끄는 사람. 성경에서는 백성을 이끄는 우두머리를 말한다. (민 11:16)
12. 야곱의 장손이며 레아의 아들. 이스라엘 12 지파의 대표였다. '보라, 아들이라'라는 뜻이다. (민 34:13)
13. 구약에서 노예나 죄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대신 값을 치루는 것을 뜻하는 말.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지신 것을 뜻한다. (민 18:15)
17. 레위 사람 고탓의 아들. '새 기름'이라는 뜻이다. (민 3:19)
19. 수리샹대의 아들로 시므온 지파의 족장. '하나님은 평화이심'이라는 뜻이다. (민 1:6)
21. 에난의 아들로 납달리 지파의 족장. '사악한 형제'라는 뜻이다. (민 1:15)
22. 아론의 셋째 아들. 형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뒤 제사장이 되었다. (민 3:1)
23. 가말리엘의 아버지로 므낫세의 족장. '하나님이 속량해 주심'이라는 뜻이다. (민 1:10)

#### 세로 힌트

1. 야곱의 둘째 아들. 어머니는 레아이다. 자손들이 12지파의 하나를 이루었다. (민 1:6)
2. 야곱의 장자로 르우벤의 아들. '포도원'이라는 뜻으로, 자손들이 이 이름을 딴 종족을 이루었다. (민 26:6)
3. 아론의 장남.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다. '고상하다'라는 뜻이다. 구약에는 같은 이름의 인물이 4명이나 등장한다. (민 3:2)
4.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 14:8)
6. 바빌론과 가나안 지역에서 통용되던 무게의 단위. 나중에 화폐를 가리키는 은화의 이름이 되었다. (민 11:32)
7. 아히에셀의 아버지. 아히에셀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인구 조사 때 단 지파의 족장이었다. (민 1:12)
8. 유다 지파의 족장. 광야에 있을 때 제1일에 예물을 드렸다. '점쟁이'라는 뜻이다. (민 7:12)
9. 엘리아삽의 아버지. 갓 지파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이다. (민 1:14)
10. 이스라엘의 제사에 올리는 것.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것이어서 제사장만 성전 뜰에서 먹을 수 있었다. (민 4:19)
11. 짙은 남색에 붉은 빛이 도는 색. 식물이나 조개, 곤충 등에서 추출한 염료로 내는데, 염료를 얻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 보통 사람들은 이 색의 옷을 입기가 어려웠다. 구약에서는 왕과 권세를 뜻하는 색이다. (민 4:13)
14. 노예를 다시 사오거나 손해 끼친 것을 배상하기 위해 지불하는 돈.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지불하는 대금을 말한다. (민 25:31)
16. 송아지 중 수컷. 이스라엘의 제사에서 자주 쓰이는 제물이었다. (민 29:2)
17. 야곱이 압락 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얻은 이름. 야곱의 아들 12명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이다. (민 1:1)
18. 베냐민 지파 엘리닷의 부친. (민 34:21)
20. 스데울의 아들. 르우벤 지파의 족장이었다. (민 1:5)

#### 기독학부모 문고 답하다

## 건강한 독립을 도와주세요

기독학부모의 고민을 듣고 해답을 찾아가는 기독학부모 함성지기(기독학부모 리더그룹) 모임에서 사춘기 아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변한 아이의 모습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에 부모가 사춘기의 특징에 대해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특히, 사춘기 때 크게 변하는 뇌에 대해 알아둔다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변화가 단순히 감정적이며 정서적인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육체적인 변화가 동반되어지는 것임을 인정만 해도 부모가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자녀양육의 목표를 '건강한 독립'에 두고 자녀를 대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아이의 사춘기를 이미 지낸 부모님들과 교류하거나 사춘기 아이들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중고등부 교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회사용설명서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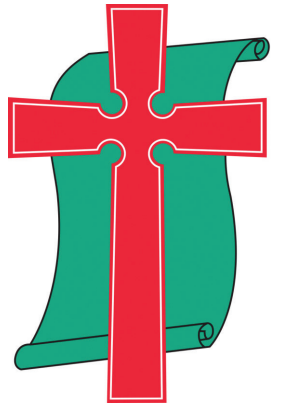
## 당회, 노회, 총회 제대로 이해하기

###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니만큼, 예수님 가르쳐주신 방향을 공유하고 이를 일상에서 실천하며, 공동체의 유지에 필요한 규례를 세우고 감독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를 장로교에서는 ‘치리회’라고 합니다. 장로교의 치리회에는 당회, 노회, 총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세례교인 30인 이상인 지교회의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되며, 지교회의 예배, 세례, 성찬, 임직 등 모든 운영을 관장합니다.

노회는 지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만들어진 조직이며, 노회 소속 지교회의 목사,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조직합니다. 노회는 노회 구역 안에 있는 각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단체를 관장하며, 지교회의 설립과 분립, 지교회 당회의 조직, 목사와 장로의 임직을 허락하고, 지교회 유지와 관리의 모든 상황을 지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 마크

장로교의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총대목사와 총대장로로 조직합니다. 회원 총수는 목사와 장로의 동수로 배정하되 1,500명 이내로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최고 치리회입니다. 총회는 소속 각 치리회 및 지교회와 소속 기관 및 산하 단체를 관할하고 치리의 기본인 <헌법>을 제정하여 노회에 제시합니다.

주님의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1893년 한국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장로교 정치를 쓰는 선교공의회’와 이를 전신으로 1901년 설립된 조선예수교장로회공의회를 모체로 하고 있습니다. 1907년 선교회에서 독립하여 자치와 권징의 권한을 갖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독(립)노회가 조직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912년 평양에서 예수교장로회조선총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신학적 입장의 차이로 1952년 고신교단이, 1953년 기독교장로회교단이 분리되었습니다. 1959년에는 재정 문제와 세계교회협의회(WCC)에 대한 신학적 인식 차이로 예수교장로회총회가 합동측과 통합측으로 분리되었습니다.

노회는 크게 서울/경기,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지역으로 구분되며, 따로 이북노회가 있어 평양, 평남, 평북, 용천, 함해 노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에는 모두 69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주님의교회는 초기 ‘주님의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노회 선택에서 갈등을 겪다가 1989년 9월 평양노회에 가입했습니다. 평양노회는 1907년 평양에서 조직되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노회의 역사적 전통에 뿌리를 내린 유서 깊은 노회입니다. 평양노회가 2015년 평양노회와 평양남노회로 분리되면서, 주님의교회의 소속은 평양남노회(평남노회)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용 방법

주님의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는 칼빈주의에 바탕을 둔 개혁교회 전통을 계승하는 교회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NCCK)와 세계교회협의회(WCC) 가입 교단이며, 미국장로교(PCUSA)의 바르트주의적 신학 변화에 맞춰 1986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2002년에는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를 공포했고,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단에 속한 신학대학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가 있으며 유관 대학으로 숭실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남대학교, 연세대학교가 있습니다. 새문안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연동교회, 안동교회 등 유서깊은 교회가 같은 교단에 속합니다. 교단 신문인 <한국기독교공보> (<https://www.pckworld.com>)를 통해 언제라도 교단 소식과 각종 기획/특집, 칼럼, 최근의 신학 경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관리법과 주의사항

당회, 노회, 총회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음을 말씀하신 바에 따라(행 6:1~6),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이를 공유하며 지키려는 뜻에서 형성된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회의 대표가 모여 노회를 이루고, 노회의 대표가 모여 총회를 이룹니다.

총회에서는 교리의 모범을 세우고 규례를 정리하여 노회의 기준을 제시하며, 노회에서는 총회의 교리와 규례를 바탕으로 당회를 감독합니다. 마치 작은 도구로 조립한 큰 기계로 작은 도구를 만들어내거나 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 성도는 속한 지교회의 당회를 통해 노회에, 노회를 통해 총회에 속하며, 총회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이룹니다. 따라서 당회와 노회, 총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함글함글

## 교회소식

**수험생을 위한 부모기도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일시 | 10/22, 10/29, 11/5(토) 오전 6:30 ~ 7:30  
11/12(토) 오전 5:20 ~ 6:20

\* 11/12은 자녀축복 새벽기도와 함께 진행됩니다.

장소 | 중예배실 및 대예배실(11/12) (현장 및 온라인)

대상 | 수험생을 둔 부모, 교사

2022.10.22 - 11/12

| 1주<br>10/22               | 2주<br>10/29                    | 3주<br>11/5                | 4주<br>11/12           |
|---------------------------|--------------------------------|---------------------------|-----------------------|
|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br>(자녀세대의 헌신) | 경순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br>(부모세대의 헌신) | 주님 손에 우뚝 드립니다<br>(선택과 결단) | 사랑으로 인도하소서<br>(나려놓음)  |
| 최혜원 목사<br>(영남신학)          | 한시영 목사<br>(영남신학)               | 장구만 목사<br>(영남신학)          | 김화수 목사<br>(주님의교회 남양주) |

여호와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시편 23:1,2

주님의교회

**Trick or Treat**

**할로윈테이가 어떤 날이에요?**

2022.10.30(토)

† 할로윈은 무슨 뜻인가요?  
할로윈(Halloween)이라는 말은 Hallow라는 Holy(거룩한, 성스러운)라는 옛 영어이고, Eve(ning)이라는 말은 전야라는 말이에요. 할로윈이라는 말은 "Allhallow's Eve(ning)"이라는 말, 즉 거룩한 전야라는 뜻입니다.

† 즐거운 축제 아니에요?  
할로윈은 대중문화를 이용한 상업적 모습으로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유입된 건전한 전통 문화의 일부로 인식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기독교적 세계관과 전혀 다른 축제입니다.

† 어디서 유래되었나요?  
켈트족 달력으로 신년은 11월 1일이고, 그 전날 밤인 10월 31일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므로 가을의 수확에 대하여 감사하고 축하하며 풍요로운 재해를 맞이하기 위해 이 날 밤 모든 악령과 악마를 몰아내고 재해에는 행운과 풍작을 기원하는 의식을 올렸어요.

† 10월 30일은 '종교개혁일'로 지켜요!  
마르틴루터는 가톨릭교회의 잘못된 전통에 대하여 목숨을 걸고, 오직 성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줄로만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종교개혁의 의미를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해요.

5년와교한  
종교개혁일

## 교회일정

- 10/23(주일)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비전선포'
- 10/30(주일) 종교개혁주일
- 11/2(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2교구 주관)
- 11/6(주일) 성찬주일

## 알립니다

## 1. 수험생을 위한 '부모, 교사 기도회'

주제 :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일시 : 10/22, 29, 11/5(토) 오전 6:30

11/12(토) 오전 5:20

장소 : 중예배실 및 대예배실(11/12)

문의 : 최혜원 목사(010.4405.8580)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 함즐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유정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즐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즐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 알립니다

## 2023 함즐함울 신춘문예 공모

함즐함울에서 제3회 함즐함울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코로나19라는 자연재해가 최근 몇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괴력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라는 인적재해가 전 세계 모든 분야에 걸쳐 충격과 공포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실로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하더라도 그 쓰임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철학이 빈곤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라는 주님 뜻에 반하여 전쟁 참여를 부추기는 종교 지도자가 있다는 외신 소식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을 통해서 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덕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랜 묵상과 예수님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 삶을 통해서 이를 실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실감하게 합니다. 사유는 언어로 이루어지며, 언어로 전달됩니다. 함즐함울에서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의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소중한 덕목 가운데, 깊이있는 묵상과 창조적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펼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즐함울 신춘문예'를 공모합니다.

## 공모 부문

- 시 : 3편 이상
- 수필 :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편 이상
- 간증 : 200자 원고지 기준 20매 내외 2편 이상

## 접수 마감

- 2022년 12월 15일 24:00

## 보낼 곳

- pclhamletter@naver.com
- 메일 제목에 <함즐함울 신춘문예 응모작품>이라고 써 주세요.

## 응모 방법

- 응모작품은 기존에 발표된 일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작품은 PDF 파일로 보내주시고, 작품 맨 끝부분에 이름, 생년월일, 직분, 연락처를 명시해 주세요. (아래아 한글이나 워드로 작업하신 파일은 PDF 파일로 저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각 부문 별 최소 응모 편수 이상을 보내주셔야 심사 대상이 됩니다.

## 당선작 발표

- 각 부문별 1명을 당선자로 선정하여 2023년 함즐함울 신년특집호에 발표합니다.